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5월 1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김 순 자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대구성전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서울에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살다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수원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환경이 낯설고 아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주일날,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이 아침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눈에서 계속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 그동안 저의 마음을 괴롭혔던 공허함과 우울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감화되고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예로운 구역장 직분을 받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의 말만 듣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여 새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볼까도 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지인이 분식점을 하는 가게가 나왔는데 제가 맡아서 하면 잘할 것 같으면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고 분식점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 손에 주부습진이 생기고 그 증상이 매우 심해서 손등에서 손가락까지 피부가 갈라져서 피가 나고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손도 치료하여 주세요. 음식을 잘 조리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손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세요!”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언제 아팠냐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유의 은혜로 손이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 이모저모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분식점을 잘 경영하므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 교회생활을 간혹 소홀히 하게 되어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사태를 계기로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다양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큰아이를 낳고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편도선염을 앓았습니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염증과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서 신유의 기도를 해주실 때, 기이하게도 목사님의 입김이 제 코에까지 닿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고 더 이상 편도선염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귀가 아프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서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출퇴근하는 시간에 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뜨거운 햇빛이 저의 아픈 귓속으로 들어와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그 열기가 무언가를 일시에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귀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전원성전에서 만나실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이 심하여 그날은 봉사를 거를까 하다가 하나님께 통증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성심성의껏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한의원에서 침을 넣어두는 침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한의원을 여러 번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어도 낫지 않았는데, 다음 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는 오십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것처럼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크고 깊어져 더욱 복음전도에 힘썼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전도에 열심인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한 다음 복음지를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불신자를 찾아다니며 전도하였는데 무척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저는 이곳 대구에서 생활하는데, 최근에 고향집 뒷산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 아래 냇가의 자갈이 모여있는 곳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머리가 뽕족한 돌에 부딪히지 않아 머리는 크게 다치지 않고 대신 목과 어깨와 팔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다녔지만 왼쪽 팔은 힘을 쓸 수가 없고 현관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발등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교회에 가지 말까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움직일 수는 있으니 먼저 예배를 드릴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가야 치료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절뚝거리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부당회장 조명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어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신발을 벗고 손을 아픈 왼쪽 발에 얹고는 라파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멘!” “아멘!”하며 화답하였습니다. 그 순간, 온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성전을 나올 때 발이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도 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영혼을 거둬나게 하시고, 이처럼 신유의 은혜와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국 곳곳에 우리 은혜와진리교회 교회당이 있어서 변함없이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듣고 축복기도를 받으며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9단원) 성도의 풍성한 삶

(제49과) 믿음으로 받는 치유

- 본문 : 마가복음 5:25-34
- 요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 찬송 : 528장(새찬송가 471장), 530장(새찬송가 472장)

본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건강이 넘치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병고와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함은, 병은 우리의 몸을 부자유스럽게 만들며, 삶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주며,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당황해하며, 유명하다는 병원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익히 아시며 또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료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고생하던 중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으나, 물이 어찌나 쓰던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취하여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서, 잉태치 못하던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이라든지,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온전케 치료해 주신 것이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을 고쳐 주시고 15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고난을 당케 하셨습니다. (벧전 2:24).

2.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자가 무엇을 만지면 다 부정하고, 그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음을 물론이요 다른 공공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고 대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였

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여자는 무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그 처참한 형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있던 재산만 다 허비했을 뿐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서 무리를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시며,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질병을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긍휼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히 13:8).

3. 치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그 때 예수님은 예상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곧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거나 또는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제자들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생겨났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로하거나 부주의한 나머지 병에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성도들은 병 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이를 신앙을 견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히 12:11).

우리가 사노라면 때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져 치료받았듯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여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